HUBKERKRADE BOOKSTORE



Design_Aat Vos & Mars Interior Architects Collaboration_Stonepark InteriorBuilders, Keijsers Interior, Homij Installations Location_Limburg, The Netherlands Built area_5,000m2 Completion_2018 Photographer_ Marco Heyda, Jan de Vries Editorial designer Yoon Hyunji Editor Park Jill

This old mall had a theater next door with an entrance hall that was mostly empty. A desire for a lively city and a lot of unused space meant only one thing: It was time to break down these physical barriers, ultimately making the social barriers follow. First, the library commissioned this project, but soon the client shifted to the municipality as the theater and other parties became involved. Social innovation would only be possible with clear cooperation between library, theater and municipality, The interior was designed for the entire cultural cluster, which now houses the library, the foyer of the theater, offices, creative spaces for performing and watching shows, and a multifunctional hall. All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 are interwoven in a vast area spanning 5.000m² with nothing separating them from one another. Upon entering the library, you can digitally become a member at the service counter, but you can also purchase tickets for a theater show next door. While this large scope means there is space for a lot of exciting programming, it also means there are reclusive options. Hidden nooks and reading booths offer calm and intimate options to drift away in a novel or read to somebody, despite being in a public place. This project is interesting because of the transition from the library as the initial client to having the humbling opportunity to design something for the entire city. This revival of the city meant that the HUB needed a new identity. There are many elements found within <HUB Kerkrade> that allude to the coal mining history of the city: a dimly lit room is a subtler allusion to a coal mine while tailor-made coal mining lifts provide physical symbolic detail. Giving a nod to the past provides local patrons with a sense of identity of their city's history. Text offer: Aat Vos 🙃

이 오래된 쇼핑몰은 바로 옆에 극장이 있었고, 출입구 홀은 거의 비어 있는 상태였다. 활기찬 도시를 향한 열망과 넘치는 유휴 공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였다. 그것은 모든 물리적 장벽을 철거해 궁극적으로 사회적 장벽이 해체되도록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하지만 곧 극장과 그 외 다른 시설이 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주체가 지방정부로 바뀌었다. 사회적 혁신은 도서관과 극장, 지방정부 사이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건물 내부는 전체가 문화 클라스터로 설계되었고 도서관, 극장 로비, 사무실, 공연 및 관람을 위한 창조적 공간과 다목적 홀 등이 들어서 있다. 모든 시설은 5,000m2에 이르는 넓은 공간 안에 서로 얽혀 있고, 그 어떤 것도 이들을 분리하지 않는다. 도서관에 입장한 방문객은 서비스 카운터에서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고, 바로 옆 극장의 입장권을 구매할 수도 있다. 이처럼 거대한 규모는 갖가지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함을 의미하고 따라서 조용한 장소도 마련되어 있다. 숨은 구석 공간과 독서용 부스는 번잡한 장소에서 벗어나 소설 속에 빠져들거나 누군가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조용하고 사적인 공간을 제공한다. 이 프로젝트가 흥미로운 이유는 도서관이라는 최초 계획이 도시 전체를 위한 공간을 디자인하는 엄청난 기회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도시의 부활은 HUB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HUB 케르크라데) 내부에는 도시의 석탄 광산 역사를 떠올려주는 여러 요소가 있다. 불빛이 약한 방은 석탄 광산에 대한 간접적 은유이고, 맞춤제작한 광산용 승강기는 물리적 상징물이다. 과거에 대한 존중은 지역 사용자들에게 도시 역사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준다. 글제공:이트보스

















